

# 뉴질랜드, 녹용 규정 개정등 요청

뉴질랜드가 지난해 자국 녹용의 국내 수요가 크게 줄자 우리나라의 녹용 관련규정의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지난해 9월15일 98년 1~8월 기간중 자국 녹용의 국내수입이 2만9천5백86kg에 2백42만7천달러어치로 이는 97년 같은 기간의 5만7천40kg, 1천1백23만5천달러에 비해 금액으로 보면 80%가량이 감소했다며 우리 정부에 개선방안 강구를 요청.

다음은 지난해 10월말경에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한 우리 정부대표와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간에 있었던 「녹용관련 협상」을 거쳐 통상부가 뉴질랜드 대사관에 보낸 우리정부 입장이다.

## □ 98년도 녹용수입 감소

△뉴질랜드= 98년 1~8월중 뉴질랜드 녹용의 한국내 수입이 2백43만불에 불과하다.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

△정부= 97년도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로부터의 녹용수입은 전체물량의 72.5%, 금액으로 62.2%에 달했다.

98년 1~8월중 전체 녹용수입량의 71.9%, 금액으로 58.0%가 뉴질랜드산이다.

녹용 수입감소는 모든 수입녹용에 공통된 현상이며 뉴질랜드에 특별히 불리한 대우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한국의 IMF가 원인이다.

## □ 녹용여부 인정기준

△뉴질랜드= 회분함량 35% 초과부분은

뉴질랜드 녹용산업의 주요 생산품이다. 이에 대해 별도의 추가 기준을 설정해 달라.

△정부= 회분함량 35%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기준 설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지금 추가기준을 설정할 경우 저급 제품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녹용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야기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녹용 규격기준에 맞춰 조기에 뺄을 절감해 수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 녹용여부 검사방식

△뉴질랜드= 우리는 Game Industry Board에서 하단부위 검사를 통해 경제적인 방법으로 회분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녹용의 경우에도 이러한 검사방식을 채택해 달라.

△정부= 녹용중품(지금은 녹용각)에 대해 하단부위 검사방식을 채택한 것도 최근의 일이며,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 □ 녹용 시험결과 인정

△뉴질랜드=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녹용시험 결과를 적절한 공인절차를 거쳐 인정해 달라.

△정부= 식약청에서 통관전 검사를 실시한 것에 따르면 98.10.31 현재 뉴질랜드산 녹용중품의 경우 51건중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 □ 절편녹용 수입허용

△뉴질랜드= 절편녹용의 수입이 허용되면

한약업계의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측 규정에 합치되는 제품만을 유통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해 달라.

△정부= 절편녹용은 현행 대한약전의 한약 규격집상 완전한 뿌의 형태를 갖춘 것만을 녹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편녹용에 대해서는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뉴질랜드 절편녹용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여타 녹용생산국(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곤란하다.\*

## 인터뷰/뉴질랜드 통상부 록우드스미스 장관

# 뉴질랜드 생산 녹용 90% 한국 수출

『한국은 뉴질랜드에 있어서 7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뉴질랜드 역시 한국측에서 볼 때 세계에서 5번째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경제 교역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상호 우호증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부 각 부처를 찾 아다니며 양국간의 활발한 무역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통상부 록우드스미스 장관의 소감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녹용수출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스미스 장관은 『뉴질랜드의 최고 주력 수출상품은 목재, 알루미늄, 양가축, 알골, 쇠고기 등이다』라고 밝히며, 녹용은 전체 수출상품 가운데 11번째의 물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장관은 또한 한국정부에서 회분 함량 25% 이하만을 녹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그렇게 정한 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에 의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뒤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양국이 기술적 연구를 좀더 진행시켜 합리적 방법을 도출했으면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한국정부가 회분함량 등의 규격화를 원한다면 뉴질랜드 역시 그 규격화에 맞는 녹용을 수출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혀 향

후 녹용가격의 상승을 예고케 했다.

스미스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90%는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대만, 홍콩, 태국,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뉴질랜드에서도 꿀과 녹용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뉴질랜드의 주식문화와 잘 맞지않아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대부분의 녹용이 수출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도 녹용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 보다 양질의 녹용이 타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장관은 녹용수출을 위해 자국의 생산농가에 우수사슴을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여러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뉴질랜드는 유럽이 지니고 있는 각종 관광지를 종합해 놓은 나라』라며, 관심있는 한국 인사들의 뉴질랜드 방문을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98.12.14>